

##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비평

송영목

To cite this article : 송영목 (2013)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비평, 교회와 문화, 30, 149-186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교회와 문화」 30 (2013): 149 - 86.

##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비평

송영목 박사 (고신대학교/ 구약학)



### 들어가면서

지난 1960년-90년대도 여느 때처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 당시 건전한 주석이 있었던 반면에, 해석가 자신의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계시록을 해석하되, 문자적-미래적(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해석이 유행했다.<sup>1</sup> 이런 혼합된 방식의 해석은 그 당시 냉

---

<sup>1</sup> 천년왕국의 성경적 근거를 주로 구약에 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하면, (1)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7년 대환난(참고. 단 9장의 70이레)이 있을 것인데, 대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 하신다. (2) 이 때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대환난을 면하게 된다(살전 4:16). (3) 휴거된 자들이 7년 동안 진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지속된다(단 9:24-27). (4) 대환난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First return of Christ to inaugurate the millennium),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다. 그리고 (5) 천년왕국을 건설하여 성도와 함께 왕 노릇하신다. (6) 천년왕국이 끝

전시대라는 세계정세와 맞물려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지금은 이 견해가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반 성도의 생각 속에 정설인양 남아 있는 듯하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1980-90년대에 ‘계시록 부흥사경회’가 자주 열렸다. 건전한 주석에 기초하지 않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내용에 그 모임에 참석한 성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청했다. 냉전 시대에 살았던 참석자들은 중공과 소련(그리고 EU와 아랍 국가)으로 대변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반공사상과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상기하면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집회를 마칠 무렵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 결과 계시록의 내용은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두려움과 경성함을 촉구했다.

이 글 앞부분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1960-90년대 까지 연도 별로 나누어서 비평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발흥하게 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발흥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비평할 것이다.

나 가면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7)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Second return of Christ to begin the final judgment) 사탄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불 못에 던지신다. (8) 그 후 악인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 즉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지 않고, 지상 재림만 인정하며, (예외가 있지만) 성도의 공중 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7년 대환난,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의 기대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동일하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른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7년 대환난, (2) 그리스도의 재림, (3) 성도의 부활, (4) 적그리스도의 멸망, (5) 천년왕국, (6) 곡과 마곡의 반란, (7) 악인의 부활, (8) 백 보좌 심판, (9) 신천 신지(참고, 목창균, 1994: 157-58).

## 1. 세대주의 천년년설<sup>2</sup>

### 1.1. 16-17세기 영국의 천년왕국 및 묵시운동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에서 유행한 세대주의의 뿌리를 가깝게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16-17세기 동안 영국에서는 묵시 사상, 천년왕국 사상, 그리고 종말의 기대감에 취해 있었다. 영국국교회가 카톨릭과 결별한 것, 메리 여왕의 박해, 스페인 함대의 패전, 영국 시민전쟁, 찰스 1세의 참수형, 유럽 대륙의 30년 전쟁 등이 묵시 사상을 촉발했다. 이런 정세에 다니엘과 계시록 같은 묵시 장르의 성경, 점성술, 비정경적인 기독교 문서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등이 가세했다. 메리 여왕의 박해는 묵시사상에 기름을 부었고, 이 기간 동안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 대륙으로 옮겨 개혁주의자들과 교제했다. 그들은 AD 300-1300년에 천년왕국이 있었고, 세상의 종말도 10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 루터와 멜랑히톤처럼, 영국의 교회 개혁가들인 John Foxe, John Napier와 Robert Pont도 16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의 묵시 운동은 영국 시민전과 관련 된 1640-50년경에 절정에 도달한 후 쇠퇴했다. 16세기 대륙에서 일어난 교회개혁 이래로 많은 이들이 현실 사건들을 성경 예언의 빛 아래서 읽으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계시록의 '인-나팔-대접 재앙'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단 7장의 네 짐승(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환상에서 이름을 유추해 온 'The Fifth Monarchists'가 가장 급진적인 묵시주의자들이었는데, 필요한 경우에 폭력으로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한 점 등에서 윈스터의

<sup>2</sup> 이 부분을 위해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뉴 멕시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Kansas의 Tabor College에서 역사와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Richard Kyle (1998:66-113)의 글을 참고했다.

농민혁명과 유사하다.

1630년대에 천년왕국이 과거라고 보는 사람과 미래라고 보는 사람들로 나뉘어 졌다. 하지만 미래-문자적 천년왕국주의자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본 반면, 혹자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천년왕국주의자들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sup>3</sup>

## 1.2. 18세기 영국과 유럽의 묵시운동

18세기에는 이전 세기의 열렬한 묵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새예루살렘, 주님의 재림 등은 일상 대화의 주요 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 Isaac Newton 같은 이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추측을 계속 했다.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진, 프랑스 혁명과 위그노를 향한 박해는 묵시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구분이 더 분명해 졌다. 이 중에서 후천년설이 더 자유롭고 교육을 받은 계층에 의해 포용되어 1850년까지 주도하게 된 반면, 전천년설은 서민 계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 때 세속적 종말론(secular eschatology)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케임브리지대학교 후임 교수였던 William Whiston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

<sup>3</sup>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Old Believe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세력으로 보면서(살후 2:7),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믿었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가 되려고 했다. 그들은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를 그리스 정교회 양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Tsar Alexis(1645-1676)와 그의 추종자들을 적그리스도요, 계 13장의 짐승들이라고 보았다. Old Believers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살해 되었고, 17세기 후반부에 그들 중 20,000명은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을 믿지 않았고,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핵전쟁과 생태계의 재앙이 세상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후천년주의자 가운데도 세속적인 경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인간의 지식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낭트칙령(the Edict of Nantes, 1598)으로 프랑스의 개신교도(휴그노, Huguenots)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루이 14세(Louis XIV, 1685)는 그 선언을 폐지하여 개신교를 박해했다. 이 때 남부 프랑스에서 휴그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Camisards'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던 고난과 박해를 천년왕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독일의 재세례파나 영국의 'the Fifth Monarchists'와는 달리 급진적인 사회 변혁이나 재산의 재분배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했다. 그들 가운데 Pierre Jurieu와 같은 이는 최후 심판의 날을 1689년으로 예언했다. 그들의 예언활동은 기존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발전될 수 있었기에 프랑스 정부는 그들 가운데 약 12,000명이나 죽였다. 그들은 1704년까지 저항하다가, 다수가 영국으로 이주했다. 1789-1799년의 프랑스 혁명(the French Revolution)도 묵시사상에 불을 지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보았다(예. Suzette Labrousse와 Catherine Theot). 프랑스 이외의 지역(예. 영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시작으로 간주하기도 했다.<sup>4</sup>

스웨덴에서는 기독교 신앙보다는 신화와 신비주의적인 제의로 무장한 묵시가가 있었는데, Emanuel Swedenborg(1688-1772)가 대표 인물

<sup>4</sup>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기에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다. 그는 1757년에 최후 심판이 발생했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불가시적인 새 시대(*invisible new age*)에 관한 강조는 뉴 에지이 사상의 선조로 간주될 수 있다.

### 1.3. John Nelson Darby(1800-1882)의 영향

세대주의의 가장 충실한 주창자는 영국의 J.N. Darby였다. 영국-아일랜드 가문(Anglo-Irish family)에 출생한 그는 Trinity College를 졸업한 후, 3년 만에 아일랜드 교회의 목사로 안수 받았다. 기존 교회에서 불편을 느낀 그는 예언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분파인 ‘플리머스 형제단’에 가입한다. 그는 이 분파 안에서 세대주의의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영어권에 널리 보급했다. 전천년설은 19세기 동안 영국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특히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을 특정 연대와 연결시키려는 역사주의적 세대주의였다. 그들은 종종 사건의 시간을 예언한 관계로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 (*date-setting game*)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Darby는 다른 형태의 전천년설 즉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였는데, 그는 계시록의 첫 몇 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종말에 발생할 사건들을 예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자기 당시의 사건들과 계시록의 예언들을 엄격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었다. 역사주의적 세대주의자에 의하면,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했다. Darby는 그 어떤 사건도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호감이 가는 요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주되었다.

이런 예언에 대한 미래적 해석을 넘어, Darby의 종말론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 것인데, 하나

님은 각 자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엄격한 문자적 해석이다. 하지만 그의 체계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선구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래적 해석은 16세기 예수회 소속 프란시스코 드 리베이라의 영향을 받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피오레의 요아힘과 비슷하다. 심지어 Darby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성도의 휴거(rapture) 교리도 'Increase Mather'(1639-1723)에게서 볼 수 있다.

#### 1.4. 19세기 미국에서의 세대주의

유럽에서는 천년왕국운동이 주로 주류에서 이탈한 변두리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에서는 종교적 경험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Ernest Sandeen은 “19세기 초(-후반까지) 미국은 천년왕국주의에 취해 있었다”고 평가한다. 식민제국주의 시대와 시민전쟁(Civil War)이 지난 후, 미국에서는 후천년설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는 역사적 천천년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밀러 운동’(Millerite movement; William Miller, 1782-1849)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은 많은 공동체(communal) 혹은 재림을 기다리는(Adventist) 단체도 발생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미국에 천년왕국적 사명(millennial mission)을 부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적은 마귀의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점차로 청교도들은 묵시 전통을 미국화시켜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예언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Increase Mather는 천년왕국을 미래로 보면서도, 그 묵시적 의미를 그 당시 사건들 안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그는 제국주의



자들과 인디언 간의 전쟁인 King Philip's War(1675-1676)를 계 6장의 붉은 말의 환상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Increase의 아들 Cotton Mather(1663-1728)는 목시를 더욱 미국화시켰다. Cotton은 인디언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1697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보았다. 청교도들이 세상 종말을 예언할 때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 간주된 ‘1260일’ (42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19세기 후반까지 대세였던 후천년설은 이 땅에서 성도는 윤리적인 완전함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은 ‘완전주의’ (perfectionism)와 손을 잡았다. 이 두 그룹은 복음전파, 뛰어난 도덕성 그리고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촉진시키려고 했다. 후천년주의자인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는 대 각성 운동을 천년왕국의 시작 조짐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황금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로마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1750-60년대의 성경 주석가들은 종말 사건을 정치와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인 미국과 영국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카톨릭 세력인 프랑스는 적그리스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카톨릭이 사라지지 않자, 청교도들은 가장 가까운 적이었던 영국 정부를 적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했다.<sup>5</sup> 많은 미국인들은 ‘혁명전쟁’ (Revolutionary War)을 천년왕국을 초래하는 거룩한 십자군 전쟁으로 보았다. 19세기 초반의 제 2차 영적 각성은 또 다른 후천년주의적 승리의 낙관주의를 유발시켰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던 Timothy Dwight는 ‘2000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설교했다. 심지어 미국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운명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이도 있었

<sup>5</sup> 이것은 ‘교회-세상 역사적 해석’이다.

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미국 안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제 폐지, 절주, 국민의 참정권 확립과 같은 사회 개혁에 기여한 바 있다.

19세기 후반 까지 후천년설이 계속 위력을 떨쳤지만, 19세기 초반에 전천년설은 죽지 않았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몇몇 사건들은 전천년주의자의 숫자를 늘렸다. 프랑스 혁명은 예언에 관심을 더 집중시켰으며, 또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상을 점증시켰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이 유입되었다. William Miller의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매우 유사했다. Miller는 계시록의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랐으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시도했다. 성경 예언은 역사적 사건들 안에 그리고 미래적 발전 안에서 성취된다고 보았다. 보스턴의 목사였던 Joshua V. Himes가 Miller에 의해 지지자로 변화된 후, 대중 매체와 순회 집회 등을 통하여 Miller운동은 확산되었다.

다시 John Nelson Darby의 사상으로 돌아오자. Darby는 예언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sup>6</sup>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설(pre-tribulational rapture)을 주장했다. 수 백 만 명의 성도가 갑자기 휴거된 후, 이 땅에는 대환난이 7년 동안 발생한다. 첫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형편은 더욱 악화된다. 그 때 정치-군사적 힘은 유럽으로 이동되는데, EU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적그리스도는 중동에 7년 평화 조약을 체결시킨다. '666'의 표를 지닌 적그리스도는 본심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한다. 이 때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유대인을 박해하는데, 이 때 온갖 재앙들과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 그 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수 백 만 명이 죽고,

<sup>6</sup> 계시록의 환상은 관련 구약본문들과 연결하여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적그리스도를 불 못에 던지신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성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저갱에서 사탄의 세력이 놓여서 조직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른다. 사탄은 불 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는 최후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녹명된 자를 위해서 신천지를 만드신다. 그 후 영원한 천국이 이어진다.

19세기 중반부 이래로 후천년설은 전천년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시민전쟁, 복음전파가 미진한 점, 미국 안으로의 카톨릭의 유입, 1차 세계 대전은 후천년주의의 낙관적인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 새로운 견해는 전천년설을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지배적인 종말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달리,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예언하지 않는다(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갑작스런 휴거를 믿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날카롭게 구분한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최종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교회를 지상에서 옮기신다. 그리고 재림이 공개적이라고 믿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와는 달리,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휴거되는 성도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건이다.

1859-1872년 동안 Darby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교리를 보급했다. 특별히 장로교와 침례교도들이 많이 동의했다. D.L. Moody(1837-1899)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시카고의 무디성경학교와 LA의 성경학교 등에서 이 교리에 입각하여 교육했다. 여러 잡지(예. Our Hope, The Truth, Sunday School Times)도 발간했다.

C.I. Scofield(1843-1921)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보급에 중요한 인물이다. 1882년에 그는 달라스의 한 회중교회 목사가 되고, 1909년에 'Reference Bible'을 출판했다. 이 책은 1,000만부 이상 팔렸고, 즉시 세대주의의 표준서가 되었다. 그는 Darby의 7가지 세대(무죄, 양심, 인간 정부, 약속, 율법, 은혜, 왕국)이론을 더욱 다듬었다. 각각의 세대는 인간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보았기에, Scofield의 사고에는 묵시적 사상이 강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더 악하게 되어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의 세계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스라엘의 재건, 러시아혁명 및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함, 유럽의 재편, 전제주의의 발흥 등)은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 현대의 대중적인 세대주의 체계는 제 2차 대전 이전에 거의 확립되었다. 그 후의 세대주의자들은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의 위협,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컴퓨터와 TV를 통해서 지배할 것, 그리고 새롭게 전개되는 중동 정세를 그들의 사상을 위해 첨가시켰다.

### 1.5. 1960년대

#### (1) J. F. Walvoord(1966)

1952-1986년 동안 달라스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였고, 1986년 이래로 학장을 역임한 Walvoord는 성경 예언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966년에 계시록 주석을 썼다.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에 암살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서 기록 한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없다면 문자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p. 8, 14). 계 1:7은 주님의 영광스런 재림의 모습이다(p. 39). 계 1:9의 요한이 본 것은 계

1장, 지금 있는 것은 계 2-3장, 장차 있을 것은 계 4장 이후의 내용이다(48). 계 2-3장의 7교회는 교회 시대의 특정 기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에베소교회는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서머나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의 교회의 박해와 시련을 가리킨다(65). 만일 계시록이 연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도덕적 진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만 담고 있다면, 그것의 예언적 중요성은 최소화되고 만다(101-2). 계 4장을 요한 당시에 성취된 것으로 보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102). 계 4:1이 명시적으로 교회의 휴거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 시대 후에 교회가 휴거되어 천상의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 준다. ‘교회’라는 명사는 계 4장부터 22:15 까지 등장하지 않는다.<sup>7</sup>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예수님의 재림과 예언적 왕국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인도하는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함이다(103). 계 2:25과 3:11은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지만, ‘교리’로서의 휴거는 계시록의 예언의 한 부분으로 보기 힘들다(103).

7인-7나팔-7대접 심판은 7년 대환난 동안 천상에 있는 휴거된 교회와는 무관한데, 이 땅에서 일어날 일 즉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관한 것이다(122). 계 6-19장의 심판은 단 9:27의 이스라엘의 프로그램 (Israel's program)에 관한 마지막 7년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도할 사건으로 이해되는 70이레와 관련된다. 계 6장은 마 24:431과 유사하다(123). 계 7장의 144,000명은 대환난 중에 구원 받은 유대인이다(140). 계 7:9-10은 대환난 기간 동안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sup>7</sup> 하지만 교회와 관련된 표현은 많다(예. 두 증인, 여인, 144,000명, 새예루살렘성)

사람들을 보여 준다<sup>(144)</sup>.<sup>8</sup> 계 13:1의 바다짐승은 이방지역인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제국이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sup>(198)</sup>. 계 13:11의 땅 짐승은 배교한 교회의 우두머리이다<sup>(205)</sup>. 666은 네로와는 무관하며 인간의 숫자이다<sup>(210)</sup>. 사탄의 삼위일체는 대환난 기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계 14장의 시온 산에 어린양과 함께 선 144,000명의 환상은 주님의 재림을 뒤 따라 천년왕국의 시작점에 일어나는 어린양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예언적 환상이다<sup>(214)</sup>. 계 16:16의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겟돈 전쟁을 절정으로 치닫게 하실 것이다<sup>(239)</sup>. 계 19:11-13은 마 24:27-31 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sup>(275)</sup>. 계 20:5-6의 ‘첫째 부활’은 실제 육체적인 부활인데, 대환난의 마지막 시점에 환난을 통과한 성도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sup>(299)</sup>.

Walvoord는 이후에 일어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1966년 주석에서 그는 이후의 주창자들과는 달리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와 계시록의 심판/환난을 연결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 1.6. 1970년대

### (1) J. F. Walvoord(1974)

이 책은 1966년의 주석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1973년에 석유는 중동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sup>8</sup> ‘144,000명’ (계 7:4)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계 7:9)를 동일한 구원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게 합당하다.

팔레스틴 그리고 아랍 국가들 사이의 적대 관계는 불안요소였다. 199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했다. 중동의 석유는 지구 전체의 문제로 발전한다. 전 세계 석유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동은 종말의 예언과 관련하여 세계의 중심지이다. 중동의 평화는 안정적인 석유의 공급과 결부되고, 결국 온 세상의 평화와 연결된다.<sup>9</sup> 결국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된다.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관해서 ‘예언적 파노라마’를 시간표처럼 보여 준다(13).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가장 큰 전쟁인 동시에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아마겟돈을 향해서 카운터 다운되고 있다고 설명 한다(15).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이며, 서구 문명의 중심인 미국과 유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극적이지만, 분명하게 아마겟돈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끌 중동의 정세를 직시하는 사람들은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 20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량살상무기가 발명되었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더 심각해 졌다. 살전 4:13-18에 나타나는 참 교회의 휴거는 요 14:3의 성취인데,<sup>10</sup> 이 땅 위의 종교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탄 숭배와 같은 현상이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계 16:16)을 향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된

<sup>9</sup> 따라서 Walvoord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석유가 주는 평화보다 영향력이 적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 문제 때문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세상 보존 언약은 무효화 된다.

<sup>10</sup> 요 14장의 중심 주제는 천상의 장소적 천국의 조성이라기보다는 오순절 성령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심이다.

다. 첫 3년 반은 이스라엘과 다른 세력이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다. 나머지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 때 중동에 권세를 발휘하려던 러시아 군대가 결국 패배할 것이다(겔 38-39). 유럽의 '지중해 연합' 이 바벨론과 로마처럼 스스로 신격화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되어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이다(28). 자연 재해와 신종 질병이 일어나서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마 24:7; 계 6:6-8; 16:13-14, 17-20; 28-29). 아마겟돈으로 모여들 군대는 남쪽의 아프리카, 북쪽의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동쪽의 중공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올 것이다(단 11:44; 계 9:15-16; 16:12).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 백 만이 죽을 것인데,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와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신다(계 19; 30).<sup>11</sup>

1966년 주석과는 약간 색깔을 달리하면서 중동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를 자주 언급하는 Walvoord의 이 책에 의하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 되어야 하며, 다니엘서와 같은 다른 구약 예언서의 시간표와도 연결되어야 하고, 민족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계시록의 상징적 해석과 영적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만다.

## 1.7. 1980년대

### (1) 메어리 S. 렐프(1987)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렐프 여사는 눅 21:24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어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본

<sup>11</sup> 여기서 Walvoord는 주님의 재림을 감람산강화에 잘못 호소한다(참고, 그의 책 189).



다.<sup>12</sup> 계 13:18의 666을 거짓 메시아가 지배하는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9). 계 13:16-18은 전자 화폐 시대를 예고한다(31). 계 17:10-11의 여덟 번째 왕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인데, 로마 제국이 부활한 것이며 유럽 공동체 연합이다(85). 살후 2:2-8의 '불법의 사람'을 바울 당시의 인물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본다(121). 계 13:7의 바다짐승은 세계 독재자이다(139). 계 13:1-3의 바다짐승의 활동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것인데 북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유럽 국가를 가리킨다(186). 마지막 전쟁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일어난다(187).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세계 통치자는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마지막 3년 반에는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모여들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겔 38; 마 24:6; 194). 7년 환란은 눅 17:26-27과 마 24:7 등에서 볼 수 있다(208-9).

간략히 비평해 보면, 성경 주석 상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면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그 누가 유럽 연합과 컴퓨터 바코드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볼 것인가?

## (2) 더그 클라크(1987)

이스라엘과 아랍(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제 3차 세계 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16). 나치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인들이 있다. 이것

<sup>12</sup> Kyle (1998:52)은 Girolamo Savonarola (1452-1498)가 이탈리아에서 임박한 세상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소개한다. 15세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그런 예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Florence는 시온이며, Savonarola 자신은 악을 물리치는 선지자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세대주의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세상 교회 역사적 해석이 미래주의적 해석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은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51). 소련이 아랍 동맹국을 후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 한다(56). 따라서 나토군과 유엔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58). 계 17장의 짐승의 열 뿔은 온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특히 EC; 67). 이 적그리스도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 연합의 수장(Mr. 스테노스 파피로스)이다(66). 이스라엘을 아랍이 공격하는 것은 원유 공급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원유를 의존하여 산업을 유지하는 서방 국가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74). 단 11:40의 예언의 성취되어, 나토와 EC는 북방 왕인 소련(과 바르샤바 동맹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와 아프리카 국가(남방 왕)와 싸운다(83). 이 때 지진이 일어나 승리를 거두고 있던 소련과 아랍군을 죽인다(102).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104). 온 세상의 은행 업무와 무역을 관장하는 세력은 브뤼셀의 EU의 수장이다(111). 스테노스는 권력을 장악한 후 유대인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총살 시킨다(179).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장악하여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유대인의 박해자이다(단 12; 마 24:15-16; 계 12; 180, 226, 228). ‘스테노스 파피로스’는 헬라어로 666에 해당 한다(229). 스테노스는 원유를 북미대륙에 공급하는 것을 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한다. 스테노스는 EC의 권력을 잡도록 처음에 도와준 기독교와 카톨릭 세력도 박해한다(234). 미국과 캐나다는 스테노스의 이스라엘 정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 한다(182). 미국은 중공과 손을 잡고 스테노스를 몰아내려고 일전을 준비 한다(251). 다른 나라들로 스테노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유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스테노스 사이의 핵전쟁이 일어나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살상 당한다(259). 악의 세력인 스테노스는 결국 파멸 당하는데, 그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다(281, 287).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와 유대인을 배척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289).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휴거 된다(293). 사탄은 지옥에 가고 새 세상이 도래 한다(293).

간략히 비평하면, 오늘 날 그 누가 유럽 연합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일방적으로 친 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누구에 의해 임명 받은 세계 경찰인가? 혈통적인 유대인은 여전히 전부 선민인가? 아니다.

### (3) H. Lindsey(1984; 한글 번역은 1993)

1903년 계시록에 관한 책을 쓴 C.I. Scofield와 달라스신학교의 J. Walvoord의 영향을 받은 홀 린세이의 책 '신세계의 도래' (There's a new world coming)는 200만부 이상이 팔렸다. 그리고 '휴거' (Rapture)라는 책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계 4장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러 하늘에 올라간 것은 살전 4:15-18과 고전 15:50-53의 휴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계 4:19장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7년 환란을 겪게 된다(참고 계 6-19장의 인, 나팔, 대접). 그리고 계 19장 끝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계 20장은 메시아의 실제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 21장 직전에 현재의 세상이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벧후 3:10),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후, 계 21-22장은 영원한 새 천국과 새 세상이 도래한다고 설명한다(10; 번역본 페이지).

계시록은 AD 85-90년에 기록되었다(12). 요한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는 자동차에 태워져서 19세기 이후의 ‘미래’로 옮겨졌다<sup>(14)</sup>. 계 1:7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타고오시는 구름은 ‘성도’를 가리킨다(참고. 살전 3:13; 히 12:1). 예수님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정점에 치달을 때 재림 하신다<sup>(22)</sup>. 계 2-3장의 7교회는 예수님 재림까지의 온 세대를 통해서 전형적인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에베소교회는 AD 33-100년에 일어날 일을, 서머나 교회는 AD 100-312년의 일을, 버가모 교회는 AD 312-390년의 일을, 두아디라는 AD 590-1517년의 일을, 사테 교회는 AD 1517-1750년의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750-1925년의 일을, 라오디게아교회는 AD 1900년에서 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설명 한다<sup>(25, 62)</sup>. 마 24:32 이하는 주님의 재림의 전조를 보여준다<sup>(69)</sup>. 휴거(마 24:40-44)의 전조로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 1967년에 이스라엘이 아랍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적국이 된 것,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 중공군이 2억 명 이상이 된 것, EU를 통해서 옛 로마제국이 부활한 것,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성도의 배교, 세계정부를 향한 움직임 등이다<sup>(71-72)</sup>.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재앙과 관련 있는 7년 환란은 단 9:24-27이 예언한 바이다<sup>(91)</sup>.<sup>13</sup> 계 6:1의 흰 말을 탄 사람은 유럽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sup>(93)</sup>. 계 6:12-17의 광명체가 어두워지는 것 등은 소련 등이 보유한 핵무기의 사용과 대량 파괴와 전쟁을 묘사 한다(참조. 계 8:12; 97). 계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은 것은 선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 한다. 이 144,000 명은 휴거되지 않고 7년 대환난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한

<sup>13</sup> 계시록의 3가지 7재앙 시리즈와 70이레가 간 본문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재앙 시리즈의 해석에 있어서 반복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다<sup>(115)</sup>. 7나팔 재앙은 전 세계 인구의 3분 1을 죽일 것이다<sup>(127)</sup>. 1961년에 중공은 2억 명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군대로 무장시킬 수 있었다<sup>(128)</sup>. 계 11장의 성전 측량은 1967년 6월 이후로 아랍을 대항한 이스라엘의 힘이 성지 예루살렘에서 강력해 지는 것과 관련 된다<sup>(145)</sup>. 계 12장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을 소개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유대인을 보호 하신다<sup>(157, 165)</sup>. 계 13장의 두 짐승은 7년 대환난의 후반기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단합한 EU와 관련 있는 두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sup>(168, 175)</sup>. 666은 컴퓨터 바코드이다<sup>(183)</sup>. 계 14장의 144,000명은 7년 대환란 동안 예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이다<sup>(185)</sup>. 계 14:8과 18장의 바벨론의 파멸 예고는 대환란 말기에 일어날 일인데, 적그리스도 나라의 수도인 로마가 핵의 폭발로 두 번에 걸쳐서 파괴될 것을 예언 한다<sup>(189)</sup>. 계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7대접 심판과 관련 되며 제 3차 세계 대전을 예고한다<sup>(210)</sup>. 계 18장은 신 바벨론인 유럽 공동체의 수도인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공동 시장의 최후를 보여 준다<sup>(228, 233)</sup>.

계 19장 후반부는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 계 19-20장은 시간적으로 일어날 일이다<sup>(252)</sup>. 계 20:6의 첫째 부활은 성도의 육신의 부활이다<sup>(260)</sup>.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불신자들에게 일어난다<sup>(262)</sup>. 사탄은 천년왕국 후 풀려나서 전쟁을 준비 한다<sup>(264)</sup>. 그러나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계 20:11-15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다. 신천지는 옛 세상을 완전히 파괴한 후 만들어 진다<sup>(274)</sup>. 새 예루살렘성은 교회가 아니라 장소이다<sup>(277)</sup>.

홀 린세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적 해석을 하면서, 계시록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문자적 해석을 한다. 그리고 홀 린세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기초하여 계시록을 끼워 맞추면

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한다.<sup>14</sup>

## 1.8. 1990년대

### (1) J. Van Impe(1996)

14개의 신학교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Van Impe는 대중적인 연설가이다. 계시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요한 당시부터 영원 후까지의 교회 역사를 가르쳐 준다(7). 계 1:1의 ‘속히’는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가 아니라,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신속히’라는 뜻이다(10). 계 1:7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15). 계 1:19의 본 것은 계 1장 내용을, 지금 있는 일들은 계 2-3장을, 장차 일어날 일은 계 4장 이후를 의미 한다(22). 계 2-3장의 7교회는 홀 린세이가 주장한 것과 비슷하게 전체 교회 시대의 특정 시기와 관련 된다(23). 계 4:1절은 휴거를 가리킨다(48). 휴거 직후 이 세상은 7년 대환난을 겪는다(49). 이 7년 대환난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데, 그 때 하늘 문은 다시 열려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 올 것이다(계 19:11-16). 계 6-18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 있지 않다(49). 환난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기간이다(참고. 단 9, 12; 마 24). 계 12:1-5는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환란을 겪을 것을 설명 한다(50).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속

<sup>14</sup> 세대주의자들은 보수적이므로 성경해석에 있어서 그들은 역사비평가와 달리 일종의 ‘고백적 성격’을 가진다. ‘고백적 비평’(confessional criticism)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고백적’이라는 말이 ‘주관적’ 혹은 ‘비학문적’으로 들리지 않으려면, 다양한 해석 방법론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참고. Vanhoozer, 2008:20).

14:4), 144,000명이 전파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애곡할 것이다. 계 6-18장은 이 땅에 남은 자에게 임하는 대환난을 설명 한다 (68). 계 20:8-9의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은 환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다(240). Van Impe는 홀 린세이의 주장을 약간 수정한 체 따르고 있다.

## (2) J. Hagee(1996)

유대인에게 매우 호의적인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에 1975년에 설립된 18,000명 교인의 초교파적인 Cornerstone교회의 목사이자 Global Evangelism TV의 회장인 J. Hagee는 North Texas University와 Southwestern Bible Institute에서 수학했다. 그는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Yitzhak Rabin의 암살과 적그리스도의 도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종말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휴거를 놓쳐 버릴지도 모르는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밝힌다(x-xi).<sup>15</sup> 1995년 11월 4일, 아라파트 PLO의장과 더불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 있었던 라빈(1922-1995)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 이스라엘 청년 Yigal Amir에서 암살당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서방과 아랍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라빈의 암살 이후, 노동당의 Shimon Peres가 수상이 되었는데, 그는 라빈의 평화 정책을 계승했다(8).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부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이 성지에서 거룩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부류는,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에 중요성을 별로 두지

<sup>15</sup> 이것을 유대인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을 걱정하는 친근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기독교적 사고로 유대인들의 운명을 점친다고 생각할까?

않는 이들로서, 관광산업, 기술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원한다. 후자는 선조들의 하나님 보다는 사람의 노력에 부강하고 현대화된 젊은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대를 둔다(16). 라빈의 암살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갈구하는 일을 단념하도록 만들었다. 라빈의 암살은 주류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교로 이동하려는 초기 운동을 격하시키도록 위협했다. 현대 이스라엘은 전통 종교적 전통을 많이 상실하고 나름 세속화 및 자본주의화 되었다(17). 종교적인 유대인과는 달리, 다수의 정치화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유적인 시온주의(liberal Zionism)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20%의 아랍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것인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의 소유라고 밝힌다. 이스라엘의 적인 아랍 세력은,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코란도 거짓이며, 모하메드의 예언도 거짓이고, 승리주의적인 자신의 신학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27). 1947년의 6일 전쟁과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 및 1967년의 전쟁을 경험한 옛 세대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렀기에 의견이 일치된다. 하지만 그 후 세대는 “그런 과거를 지난 일로 여기고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원한다면 넘겨주라! 지금 당장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중적인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29). 시 89:28-34는 언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한다(30). 따라서 Hagee는 다른 세대주의자들처럼 시 89편을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으로 잘못 이해한다. 하지만 Hagee는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수많은 모형론적 관련성과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분명하게 설명 한다(49-83). 1995년 12월 ‘지구의 운명을 가리키는 시계’ (Doomsday Clock)는 자정 쪽으로 3분 더 당겨졌다. ‘핵 과학자들의 저널’ 의 회장인 L. Rieser는 자정에서 14분 떨어져 있다고 보았다.

지구 파멸의 아마겟돈 전쟁의 조짐은 많다. 지식의 폭발(단 12:4), 중동의 전염병(슥 14:12-15) 즉 핵무기의 보급, 이스라엘의 재탄생(사 66:8-10),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옴(렘 23:7-8),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에 의해 통치되지 않음(시 102:16), 지구촌이 되어 즉각적인 국제적 의사소통(계 11:3, 7-10), 속임(렘 9:5; 마 24:4), 기근과 역병(마 24:7-8), 지진(마 27:51; 행 16:26),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84-100).

휴거가 갑자기 발생하기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106). 계시록의 재앙들은 휴거 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을 환난을 묘사 한다(115). 그 무렵 적그리스도가 출현 한다(요일 2:18). 세상은 컴퓨터의 도움 등으로 단일 경제 체제로 재편 된다(계 13:15-17; 참고 마 24:15). 우상숭배를 강압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주의적 신앙은 박해를 받는다(단 7:25). 666은 하나님의 완전에는 항상 모자라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숫자이다(114).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태어난 러시아는 이슬람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 한다(147). 사탄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 한다(172).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신다(178). 이스라엘은 보호 된다(창 12:3). 새 예루살렘이 도래 한다(183).

비평해 보면, 다른 세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Hagee는 창세기 및 구약 선지서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지 않고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 감람산 강화와 계시록의 이해에서도 명백한 오류를 보인다.

### (3) T. Ice와 T. Demy(1998)

Thomas Ice는 Tyndale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Pre-Trib 연구소'( '환란 전 휴거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며, Timothy Demy는 달라스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해군 군목으로 다년간 섬겼다.

역사와 현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 될 최종 종말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특히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결실을 향해서 나아간다. 즉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 수 있다(8). John Walvoord와 같은 이는 1990년대의 걸프전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도할 만한 배경을 제공한다고 본다.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은 휴거 이후와 관련 된다. 하나님은 현재 교회 시대 동안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신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종말과 휴거에 대한 징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10). Ed Hindson 박사가 주장한 대로, 이 종말의 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종말에 세상에 환란이 임한다, 최종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등), '가정' (사실적 예언이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가정해야 함. 예. 종말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임, 참고. 겔 38-39장의 곡과 마곡), '상상' (가정에 근거한 순수한 추측임)이라는 세 열쇠가 필요하다(12).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기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성경 예언은 연결되어야 한다(13).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교회가 휴거되면 성취를 위한 준비의 시기를 보낼 것인데, 성취의 시기가 끝나면 성취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때 대환란이 7년 동안 지속되며,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15).

창 2:2에 근거해 볼 때(참고. 벧후 3:8), 창조 이래로 세상 역사는

6,000년 동안 지속되는데(즉 'septa-millennial theory'), 그 후 예수님이 재림 하셔서 추가로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창조 후 제 7일째의 안식은 1,000년 왕국에 해당하고, 제 8일은 영원에 해당 한다. AD 2000년은 창조 이래로 6,000년이 마감되는 시간이기예 중요하다(18). 교회 시대가 지나면 교회가 휴거되고, 그 후 70이레가 시작 된다. 70이레는 3년 반 씩 두 개로 나누어지는 환란의 기간이다. 3년 반은 1290일로서 단 12:11에 근거한다. 두 번째 3년 반은 단 7:23-25의 네 번째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다(참고 단 11:36-39). 이 환란의 기간이 지나면 메시아 시대 혹은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 된다(28).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미래주의자이다. J. N. Darby가 발전시킨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그리스도께서 휴거 시 그리고 재림 시에 강림하시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독특하다(30).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휴거에 의해 끝나면 7년 환란 시기가 시작되고, 그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결국 영원한 천국이 도래 한다고 본다. 마 13장의 천국 비유가 교회 시대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씨 뿌리는 재에베소 교회-알곡과 가라지[서머나 교회]-겨자씨[버가모 교회]-누룩[두아디라 교회]-감추인 보화[사데 교회]-진주[빌라델비아 교회]-그물[라오디게아 교회]), Arnold Fruchtenbaum 박사와 달라스신학교의 설립자인 L. S. Chafer 박사가 주장하듯이, 교회 시대의 종말에 대한 징조는 계 2-3장의 7교회가 단계 별로 보여준다. 현 시대는 라오디게아교회의 시대(1900년-현재)이다(참고 딤후 3:1-5; 약 5:1-8; 벴후 2:1-22; 유 1-25; 47, 50).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은 교회와 세상 정세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무신론,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배교, 도덕적 혼란, 미신을 발흥과 러시아, 중공과 UN의 득세,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아랍과의 갈등, 석유 파동, 유럽의 10개국 연합, 세계의 독재자로 자처하는 지중해 연안의 지도자들이 중동 평화를 논의함,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함(겔 38-39), 새 세계 지

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는 세상 연합의 저항과 그들의 아마겟돈에서의 패배(57-58).

세계의 중심으로 예언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선민이기에(속 12:2-3; 마 24:16), 휴거 이전(사 11:11-12; 겔 20:33-38; 습 2:1-2)과 1000년 왕국 이전(신 4:29-31; 사 27:12-13; 렘 16:14-15; 겔 11:14-18; 습 10:8-12; 마 24:31)에 다시 모여진다(64). 7년 환란의 중간에 단 9:27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참고. 마 24:15-16; 살후 2:3-4; 계 11:1-19). J. D. Pentecost 박사가 주장하듯이, 단 2, 7장 그리고 계 13, 17장은 종말에 10개의 국가가 세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계 13:12-17은 그가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를 단일체제로 만들 것으로 본다(참고. 계 17-18). 휴거 이후에 등장할 계시록의 환란과 심판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 첫 반(半) 심판은 7인의 심판이며, 나머지 반 심판은 7나팔과 7접시 심판이다. 적그리스도는 666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7접시 심판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발생 한다(198). 계시록의 시간 표현들인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1,260일’은 7년 대 환란을 둘로 나눈 기간 즉 반이다(173).

Ice와 Demy는 세대주의 주창자들인 Pentecost, Darby, Walvoord 등으로 달라스신학교와 관련 있는 여러 학자들을 종합한다.

### 1.9. 한국 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 경향

한국 성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정설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990년대와는 달리 요즘은 계시록 강좌가 적지 않은 신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강의 시간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이것이 우리 학교·교단의 입장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또한 계시록과 관련하여 신학교와 교단 교회 사이의 연속성이 희박하다. 한 예로,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며 가르치더라도 교단 목사들은 통속적인 전천년설로 설교한다. 심지어 지역 교회는 신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소문으로 들은 ‘소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계시록 세미나를 여는 경우도 있다. 이단이 계시록으로 세미나를 열고 자신의 교리를 세우며 포교하는데, 기성 교회 목회자들은 건전한 주석으로 잘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계시록을 자주 의존하는 이단들은 잘못되었기에 상종을 말고 피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십상이다. 올바른 계시록 해석과 교회를 섬기는 영향력이 확보되려면 좀 더 세월이 흐르고 계시록 전문가가 더 배출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계시록 전공자들이 지역 교회를 설교와 특강 혹은 사경회를 통해서 섬겨서 그 내용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오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성경해석은 세계정세라는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2. 역사적 전천년설: 정성욱교수의 “세계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현황”<sup>16</sup>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먼저 텐버신학교의 교의학 교수인 정성욱교수의 주장(2.1-2.6)을 요약해 보자.

<sup>16</sup> ‘역사적 전천년주의 국제학술대회’ 발제 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2012년 6월 11일.

## 2.1. 역사적 전천년설의 발흥

사도 요한의 두 제자 폴리갑(69-155)과 파피아스(70-155), 저스틴 마터(103-165),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130-202)의 미래 종말의 시나리오에는 다음과 같다. (1)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대환난이 발생하고, (2) 대환난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3)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성도는 휴거되며, (4)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천년왕국은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한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상태이다. (5) 천년왕국 이후 불신자가 부활하고, (6) 최후심판이 시행된 후, (7)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세워진다. 이레니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170-235)는 단 9장의 ‘70이레’를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종말론과 연결하여 해석했다. 라틴 교부 터툴리안(160-225)은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가 시행하는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며, 그 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성도의 몸이 신령하게 변한다고 주장했다. 콘스탄틴 황제의 신학 자문이었던 락탄티우스(240-320)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 성도가 영생으로 회복되고 난 후,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았다(사 11:6-9).

## 2.2. 역사적 전천년설의 쇠퇴

4세기 후반-16세기까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쇠퇴했던 4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1) 몇몇 교부가 천년왕국을 물질적인 복으로 설명한 것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고, (2) 콘스탄틴 이후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평안을 누릴 때 교회가 겪을 대환난 개념은 적합하지 않았고, (3) 몬타

누스와 등 일부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 시점을 예언한 것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고, (4)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0-215)와 오리겐(185-234)의 비문자적 해석이 발흥한 것이다. 4세기 후반의 티코니우스는 계시록과 성경의 예언을 비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무천년설의 입장을 따랐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도 마찬가지다. 무천년설에 입각하여 루터와 칼빈도 적그리스도를 미래 인물이 아닌 당대의 로마 교황제도로 보았고, 폭력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던 재세레파를 반대했다. 그 후 청교도와 개혁신학자들도 대부분 이 입장을 견지했다.

### 2.3. 역사적 전천년설의 재 부흥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개혁시기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른 이들도 있었다. 독일계 칼빈주의자인 J. H. Alsted(1588-1638)는 사 2:1-4와 34:1-17을 지상의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로 보았다. 영국계 영어학자인 J. Mede (1586-1638)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인 교황제도가 파멸된 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웨스트민스터회의에 참여한 청교도이자,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였던 Thomas Goodwin(1600-1680), 미국의 청교도 J. Davenport (1597-1670), S. Mather(1626-1671), T. Dwight(1752-1817), 그리고 S. Sewall(1652-1730)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랐다.

18-19세기의 근대교회 시기에 J. Priestly(1733-1804), 영국의 개혁파 침례신학자 John Gill(1697-1771), 성공회 감독 J.C. Ryle(1816-1900), C.H. Spurgeon(1834-1892), B.W. Newton(1897-1899), 주석가 F. Delitzsch(1813-1890), T. Zahn(1838-1933), 주석가 P. Lange(1802-1884) 등이 있다. Henry Drummon

이 주도한 'The Albury Conferences'(1826-1830)는 교회에 대한 심판과 유대인의 귀환이 있는 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았다.

## 2.4.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발흥

영국의 J. N. Darby(1800-1882)가 중요한데, 그는 이스라엘과 교회 각각을 향한 다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다른 운명과 소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종말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환난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2) 교회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3)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4) 예수님과 교회가 지상으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5)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가 회복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9세기 후반-20세기 동안 미국에서 확산되었는데, D.L. Moody(1837-1899), W. Blackstone(1841-1935), C.I. Scofield(1843-1921, 1900년에 관주성경이 출판됨), 달라스신학교 설립자인 L.S. Chafer(1871-1952), Hal Lindsey, 그리고 "Left Behind"시리즈를 쓴 T. LaHaye와 J. Jenkins 등이 주요 인물이다.<sup>17</sup>

## 2.5. 최근의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

20-21세기 서구 복음주의 신학계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친 장로교목사요 계시록 주석(1936)을 쓴 C. Eerdman(1866-1960), 풀러신학교의 G.E.

<sup>17</sup>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관해서는 R. Kyle, *The Last Days are Here Again* (Grand Rapids: Baker, 1998), 66-113을 참고하라.



Ladd(1911-1982), 마태복음 전문가로 Westmont대학교의 R.H. Gundry(환란 후 예수님 재림 시 휴거설), D.A. Carson(b. 1946. 천년설에 대한 글을 쓴 적 없음), D.J. Moo(b. 1950; 환란 후 휴거설), 덴버신학교의 C. Blomberg(b. 1955. 환란 후 예수님 재림 시 휴거, 그 후 지상 천년왕국. 계 6-19장은 먼 미래의 사건. 참고, A Case for Historic Premillennialism: An Alternative to 'Left Behind' Eschatology. Baker Academic, 2009), 에즈베리신학교의 B. Witherington III, R.H. Mounce, C.S. Keener, G.R. Beasley-Murray(막 13장도 역사적 전천년설로 주석), 덴버신학교 구약교수인 R.S. Hess, M.D. Carroll 등이 있다. 조직신학자들로는 침례교 개혁신학자인 M. Erickson(b. 1932. 환란 후 휴거설), 피닉스신학교의 W. Grudem(b. 1948), 장로교신학자인 덴버신학교의 B. Demarest, 싱가포르 트리니티신학교의 Tony Siew, 박형룡, 박운선, 박수암, 한정건, 이광복(세대주의의 징조와 무천년설의 상징적 해석을 신앙의 적용차원에서 수용하는 수정된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 등이 있다. 참고로 진보적 세대주의(progressive dispensationalism)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유사하다.

## 2.6.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간략한 비교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공통점으로는 (1) 예수님 재림 전에 배도의 기간과 대환난이 있고, (2) 예수님 재림 시 생존 성도가 변화하고,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휴거된다. 이 두 입장의 차이점으로는 (1) 예수님 재림 후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 정성욱교수는 창 1:28의 문화명령이 '지상'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으로 본다. (2)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에 발생하는가?(무천년설의 입장).

## 2.7. 비평: 계시록과 미래적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성욱교수는 가장 성경적이고 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종말론 논의가 정리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너무 나이브한 결론이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가 많이 있어,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중 몇 가지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사야(2:1-4; 11:6-9; 34:1-17 등)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한 천국을 묘사하지 않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는지 주석이 필요하다. 구약 예언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구절이 있는지?

(2) 단 9장의 ‘70이레’는 대환난과 천년왕국과 관련되어,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예언하는지 주석이 필요하다.<sup>18</sup>

<sup>18</sup> BC 539년경,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온지 69년이 지난 시점 곧 출바벨론을 1년 앞두고 주어진 예언인 70이레(단 9:20-27)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브리엘은 70이레가 지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말한다(24-27절). 70이레는 문자적으로 ‘70주간’ 혹은 ‘70x7=490’을 의미하지만, 앞으로 490년이 지나야 귀환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70이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시점으로부터’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되는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70이레’가 정해졌다고 말한다(24절). 바로 이 70이레가 지나면 (1)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치고, (2) 죄가 끝나며, (3) 죄악이 속함을 받으며, (4)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5)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6)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게 된다(24절). 70이레가 시작되는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때부터다(25절). 이 때로 부터 69이레가 지나면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후 죽으신다. 바로 그 때 성과 거리와 해자(trench)가 중건될 것이지만, 그 때는 여전히 고통의 때다. 전쟁은 계속되고 파멸이 닥칠 것이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 후 성읍과 성소가 훼파될 것이다(26절). 나머지 한 이레 동안 한 왕(의 백성)이 등장하여 (1)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지키며,

(3) 공관복음서의 감람산 강화의 대환난은 AD 70년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인지 주석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 24장의 문맥은 대환난은 불신 유대인에게 임하는 심판이지, 성도가 미래에 당할 환난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에 7년 대환난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4) 계 1:1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계 6-19장을 포함하여 먼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는지? 계시록의 대 부분의 내용은 요한 당시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위로의 편지가 아닌가?

(5) 계 20장의 천년왕국에 관한 묘사를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계 1:1의 ‘보이시려고’와 ‘지시하셨다’는 환상을 비문자적으로 즉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이 아닌가?

(6) 계 21장의 신천지와 새예루살렘성을 문자적인 미래의 실제 천국으로 볼지, 아니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틀로 천국의 장소성과 인격으로 각각 해석해야 하는지?

(7) 살전 4:16-17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

(2) 그 이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3) 미운 물건을 성전의 날개 위에 세울 것이지만, 이 왕은 정한 끝 날에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27절). 구약에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에 초점을 두시며 말씀한다. 70이레 중 ‘7이레’ 동안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재건된다(25절). 이것은 70이레가 시작된 BC 538년 1차 귀환할 때로부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도 포함된다. 7이레가 지난 후, 다시 ‘62이레’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으신다(26절). 즉 ‘69이레’가 지나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이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승천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성소의 파괴와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고 악한 세력이 파멸되는 기간이다. 1이레는 AD 70년 사건을 포함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모든 회복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70이레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멀게는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을 예언하고 있다.

는지? 바울은 성도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 시, 이 땅이 신천지로 순식간에 바뀌고,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임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가?

(8) 벤후 3장의 재림 시에 있을 불 심판의 기능이 정화인지, 아니면 소멸인지? 베드로는 바울과 보조를 같이하여, 세상의 구성 요소가 불로 정화되어, 이 땅이 신천지로 바뀔 것을 설명하지 않는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천년왕국 이론은 교리적 접근으로 풀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계시록의 해당 본문을 주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용어를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하려면 ‘미래적 종말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 나오면서

AD 999년에서 1000년으로 전환 될 때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Sylvester 2세 집례로 미사가 자정 직전에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였다고 믿었고, 서로 용서하고 자선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 때 주님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비슷하게 지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전환 될 때도,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무엇이 이런 세기말적 소동을 유발했는가?

계시록은 세상의 상황과 정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어야 한다. 즉 신문보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부터 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 1970-90년대 심지어 지금까지도 문자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기초적인 주석 원칙을 무시했다. 더욱이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계 7장의 144,000명에 근거하여 선민으로 보면서 신약 교회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선민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중동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이유로 국제 사건과 정세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분명한 것은 계시록은 요한 당시와 무관한 채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미래의 시간표로 의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종말론을 미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계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 4장을 휴거로 이해한 것, 단 9장의 70이레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 것, 수많은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 계 4:1-22:15 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예. 두 증인, 144,000, 아이를 해산 한 여인, 새 예루살렘 성 등)의 중요성을 무시한 점, 마 24장의 감람산 강화를 인-나팔-대접 재앙과 연결 시켰으나 주님 재림 직전의 환란을 예언한 것으로 잘못 본 것 등은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석상의 오류들이다. 우리는 이런 오류의 찌꺼기를 올바른 성경 주석으로 씻어 내어야 한다.

## 참고문헌

메어리 S. 렐프, 『세계정부와 666』. 도서출판 문진당, 1987.

목창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신학과 선교 19 (1994): 151-73.

더그 클라크, 『예수님 재림의 순간』. 대우출판공사, 1987.

Cohen, G. G. & S. Kirban, *Revelation Visualized*. Chattanooga: Future Events Publications, 1981.

- Hagee, J. *Beginning of the End: The Assassination of Yitzhak Rabin and the Coming Antichrist*. Nashville: Thomas Nelson, 1996.
- Ice, T. & T. Demy. *Prophecy Watch: What to Expect in the Days to Come*. Eugene: Harvest House Publishers, 1998.
- Kyle, R. *The Last Days are Here Again*. Grand Rapids: Baker, 1998.
- Lindsey, H. *There's a New World Coming*. Eugene: Harvest House, 1984. (한글판은 1993. 『신세계의 도래』 . 보이스사)
- Swindoll, C. R., J. F. Walvoord, & J. D. Pentecost. *The Road to Armageddon: a Biblical Understanding of Prophecy and End Time Events*. Nashville: Word, 1999.
- Vanhoozer, K.J. (E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8.
- Van Impe, J. *Revelation Revealed*. Troy: Word, 1996.
- Walvoord, J.F.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Chicago: Moody Press, 1966.
- Walvoord, J. F. *Armageddon, Oil and the Middle East Crisis*. Grand Rapids: Zondervan, 1974.